



충절을 기리는 역사의 제전 부여 백제문화제

부소산 서쪽 백마강변에 있는 구드래는 강안의 절경과 어우러진 멋진 분위기와 함께 국내의 유명 작가의 59개 작품이 설치된 조각공원이 잘 꾸며져 있어 부여사람뿐 아니라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애용되고 있다. 구드래 나루는 백제시대의 도성인 사비성을 출입하는 큰 포구였고 지금은 백마강을 오르내리는 유람선의 선착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구드

래’는 백제시대의 말로 ‘대왕국(大王國)’을 높여 부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다. 반세기 역사를 지켜온 백제문화제가 지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이곳 구드래 광장과 부여 각지의 유적지에서 열렸다. 백제문화제는 경주 신라문화제, 진주 개천문화제와 함께 전국 3대 문화제의 하나로 옛 백제의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전통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제전이다.



제11회 백제문화제(1965년) 때의 궁녀제

문 대제였기에 각처에서 모여든 관람객으로 부여읍내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횡수가 거듭되면서 이름도 백제문화제로 바뀌고 행사의 주체도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이름으로 관이 떠맡게 되었지만, 화려한 전시 위주의 행사가 아니라 선조의 얼을 기리는 정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자세는 잃지 않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66년 12회부터는 4대 62년의 백제 도읍지였던 공주에서도 동시 개최되었고, 또 21회부터 24회까지는 충남의 제전이라고 하여 대전에서도 백제문화제를 동시 개최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짝수년도에 부여, 홀수년도에는 공주에서 대제(大祭)로 모셔지고 있다.

백제문화의 절정과 패망

공주로 천도한 뒤에도 계속 불안했던 백제 왕실은 무령왕과 성왕 대에 이르러 어느 정도 힘을 회복한 다음, 보다 강성한 왕국 건설을 위해 성왕 16년(538)에 부여로 재천도 한다. 그 후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호남평야지대의 경제기반과 진취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 부여시대(538 ~ 660년) 123년 간 백제문화의 최전성기를 누린다.

남부여의 수도였던 부여는 완성된 백제문화를 보여 주면서, 한편으로는 낙화암 삼천궁녀나 황산벌에서 산화한 한 맺힌 백제 최후를 지킨 영령들의 숨결과 함께 백제 패망의 이픔도 고스란히 전해 준다. 나당연합군의 말발굽 아래 무참히 도륙당하고 치욕적인 굴복을 겪어야 했던 백제 최후의 현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소산에 올라 백마강을 내려다보며 백제의 애환을 회상하는 것이다.

50년을 이어온 제전

백제문화제는 1955년 4월, 부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백제대제집행위원회가 부소산성에 제단을 설치하여 백제의 삼충신 좌평 성충, 홍수, 계백장군에 제향하고 낙화암 아래 백마강에서 수륙재를 올린 제1회 '백제대제'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열렸을 때 규모는 작았지만 전국에서도 보기 드



전몰한 백제 장병의 원혼을 위로하는 은산별신제(왼쪽)와 백제성왕 사비정도축제에서 역대 왕의 신위를 제단에 모시고 있는 모습(오른쪽)

충신 성충이 말했던 전략요충지 탄현과 백강어구 지벌포를 포기한 백제군은 황산벌에서 나당연합군을 맞이한다. 계백 장군은 5천의 결사대로 5만여 신라군과 대적하지만, 황산벌(논산군 연산면 신양리 일대)에서 패함으로써 신라군과 당나라 군사의 협공은 성사되었고, 부소산 북쪽 백강 가에 진을 쳤던 도성 수비군까지 무너지면서 성은 함락된다.

백제의 투항과정에서 나당연합군이 행한 도를 넘은 비인간적 작태를 보면 낙화암의 전설이 이야기해주는 왕비, 비빈, 궁녀와 아녀자들의 피해는 오히려 상징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대규모의 살육과 약탈은 승자의 당연한 권리가 되었을 것이고, 궁궐과 왕릉, 사찰 등 왕도의 문화유적들과 번성했던 도성의 민가들도 약탈의 손길을 피하지 못 하였음은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망국의 한과 충절을 기리는 제전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는 패망과 함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나당연합군의 승전의 기록만이 전설과 함께 곳곳에 남게 되니, 장렬하게 숨져간 무명의 장졸들의 원혼은 구천을 떠돌다가 괴질이나 액을 내리는 형식으로 한풀이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여 은산 지방에 질병이 유행하여 인명피해가 극심할 때 백제부흥군의 유해를 수습하고 위령제를 지내자 괴질이 물러났다는 이야기와 함께 전해져오는 전국 유일의 장군제적 형식의 제례 은산별신제(중요무형문화재 제9호)는 백제멸망사가 민간신앙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백제문화제는 망국의 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과 충신·열사정신의 계승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제전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고천제’를 비롯하여 ‘백제혼불 재화의식’, 백제 말 8충신과 황산벌전투에서 산화한 오천결사대의 넋을 추모하는 ‘충화팔충제’, 사비 백제 6대왕 123년 간 국가를 수호하여 온 삼산(日山, 吳山, 浮山) 신령에게 백제문화제 개막을 고하고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축원하는 ‘삼산제’, 제26대 성왕이 용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천도하고 이를 선왕과 천지신명께 알리는 ‘백제성왕 사비정도축제’, ‘오천결사대충혼제’, 백제 말 삼충신인 성충, 홍수, 계백의 구국충절을 추모하는 ‘삼충제’, 비참한 국운과 함께 낙화암에서 몸을 던진 궁녀와 백제여인의 숭고한 정절을 추모하는 ‘궁녀제’, 사비 천도 이후 6대왕의 성덕을 추모하는 ‘백제대왕제’, 역대 왕과 나라를 지키다 전몰한 충의장졸과 열사 삼천궁녀, 희생된 천군만마의 고혼들을 극락세계로 왕생토록 천도하는 ‘수륙제’ 등 망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충신열사의 영혼을 위로하는 내용의 각종 제례가 유교, 불교, 민간신앙이 각각 또는 결합된 형태로 봉행되고 있다.

오천결사대충혼탑과 충혼제

문화제의 여러 제전들은 부소산의 삼층사, 궁녀사,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의 백제왕릉원, 충화팔충사 등 왕

도 사비의 유적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여 치러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정림사지의 오층 석탑 앞에서 시작되는 수록제는 전통적인 불교의식으로 진행되는데 법요식과 탑돌이에 이어 구드래 선착장까지의 제등행렬이 이어진다. 백마강에 이르러서 치러지는 작은 배에 등을 띄워 보내는 유등의식과 보리쌀밥을 어류중생에게 보시하는 어보시(魚布施) 행사에는 구경꾼을 포함하여 수많은 군중이 운집하여 삼천열혼(三千烈魂)의 정신을 기린다.

또한 황산벌전투에서 구국충정의 한을 안고 산화한 무명 오천결사대의 넋을 위령하는 제전의식인 '오천결사대충혼제'는 궁남지 옆 화지산의 '백제오천결사대충혼탑' 앞에서 백제복식과 의장을 구성하고 옛 군례로 제를 올리는 장엄한 의식이다.

결사대충혼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계백장군과 5천결사대의 원혼을 위령하고자 10만 부여군민의 염원을 모아 2002년 11월 30일 준공한 조형물이다. 상징탑인 백제의 문은 높이 18미터에 백제시대의 치미(기와지붕의 용마루 양쪽 끝을 장식하는 기와)를 좌우대칭으로 배치하고 중앙 연결부에 인동문(忍冬文)이 조각된 형상으로 인, 의, 신, 충이라는 백제정신과 백제인의 기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한다. 또한 오천결사대 출정상은 높이 8.8미터로 계백장군과 결사대의 충정의 기상과 모습을 기마와 보병의 군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역행사를 넘어 전국행사로

이번 행사를 주최한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는 백제문화제를 지역단위의 행사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느끼고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전통문화축제로 만들고자 제전행사 뿐만 아니라, 백제대왕행차와 계백장군 출정 행렬 등의 역사재현 프로그램, 백제토기물



▲ 부여 군민이 조성한 높이 8.8미터의 오천결사대 출정상
▼ 구드래 광장에 마련된 참여 프로그램 중 백제8문양 걸어보기 행사장

레경연대회, 백제역사퀴즈왕 선발대회, 백제토기가마 열기 재현식 등의 체험행사 등 8개 분야 38종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전의식이 중심이 되는 행사가 많다보니 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그저 구경으로 끝나버리는 듯한 느낌도 남는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축제에 비하면 부여의 제전은 역사와 문화적 자산이라는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도 충절의 계승이라는 백제문화제의 정신을 잃지 않는 축제의 전형이 창조되고 유지되기를 기대한다.

〈양금식〉